



전북대 오상의 교수, 수의학회 ‘젊은 과학자상’ 수상

전북대학교 오상익 교수(수의대 수의학과, 생체안전성연구소)가 최근 열린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상은 수의학 분야의 학문 발전과 연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40세 이하의 우수 연구자를 선정해 수여한다.

이에 오 교수는 다양한 동물질병의 병리기전 및 병태생리학적 변화를 규명하는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며 최근 5년간 30편이 넘는 SCI 논문 발표했다.

특히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돼지의 병리학적 특성과 숙주-바이러스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오상익 교수는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ASF를 비롯한 주요 동물질병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20~12.15.) 중 국민의 안전과 산불 경각심을 높이고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산림정화 캠페인을 11월 19일 관리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적상산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 대상으로는 적상산으로 정하고 등산객을 대상으로 입산자 실화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의 주요 원인임을 알리는 동시에 산불예방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및 산불드론감시단 등 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 및 대형 진화차량 도입 등 산불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구천동 노인회 산불 예방 교육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19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구천동노인연합회 등 지역 주민 약30명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영농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원 내·외 산불 예방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금지 교육 △산불 발생 원인 및 예방수칙 △산불진화장비(산불진화차량 등) 설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들이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최태호 무주군지회 구천동 분회장은 “앞으로도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광활면 주민자치회, 콩 수확·탈곡 구슬땀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준수) 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두부나눔 행사’ 준비를 위한 콩 수확 및 탈곡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확한 콩은 광활면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연말에 있을 두부나눔 행사에 필요한 두부 제작 재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콩을 수확하고 탈곡 작업을 진행했으며, 작업 후에는 두부나눔 행사 날짜 선정 및 세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빛 만으로 연산하는 단일 소자 컴퓨팅 구현’

전북대 박유신 교수 연구팀, 차세대 초저전력 AI 핵심기술 제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단일 소자서 모든 기본 논리 연산 수행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박유신 교수 연구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강대학교, 동국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전기 없이 빛만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새로운 광컴퓨팅 소자를 개발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NRF) 중견연구자지원사업(RS-2025-00517064)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관고유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Advanced Materials’ (IF 26.8, JCR Materials Science, Multidisciplinary 상위 2.1%)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구의 핵심은 특수 소재(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안에서 전하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조절해 들어오는 빛의 세기와 위치만으로 전류의 방향(플러스/마이너스)이 바뀌도록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의 소자만으로 AND, OR, NOT 등 모든 기본 논리 연산을 자유롭게 바뀌며 수행할 수 있으며, 전압을 0V로 설정해도 동작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즉, 전력을 거의 쓰지 않는 광(빛) 기반 컴퓨팅이 실제로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논문의 제1저자는 안단태 박사과정(KU-KIST 융합대학원)이다.

연구팀의 이번 기술은 복잡한 회로나 다수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재 자체의 특성을 이용해 연산 기능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는 소형 기기나 배터리 사용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저전력·고집적 광컴퓨팅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박유신 교수



안단태 박사과정

앞서 연구팀은 2022년(Nature Communications)에 전기 없이 빛만으로 연산하는 소자를 처음 선보여, 한 개의 소자로 5가지 기본 논리 연산을 구현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더 발전시켜 모든 기본 논리 연산을 하나의 소자에서 자유롭게 바뀌며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즉, 빛만으로 동작하는 ‘완성형’ 광컴퓨팅 소자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기술은 작고, 전력을 거의 쓰지 않고, 빠르게 판단하는 센서-컴퓨팅 장치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제조, 헬스케어, 환경·안전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실생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제품으로 쓰기 위해서는 내구성, 수명, 패키징, 칩 연결성 등을 추가 검증해야 한다.

박유신 교수는 “복잡한 회로를 많이 쌓지 않고도, 소재 자체의 성질만으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센서가 곧 연산을 수행하는, 즉 ‘보고 바로 판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단태 박사과정(KU-KIST 융합대학원)은 “인턴 시절부터 이어온 연구를 발전시켜 이번 성과로 연결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실리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단태 박사과정은 2026년 2월 졸업 예정으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 센서·반도체 연구 그룹으로부터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 제안을 받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봉동농협 김윤희 조합장,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 수상

봉동농협 김윤희 조합장이 최근 전북농협 정례대회에서 ‘전북농협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은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하고 농협 핵심사업 활성화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조합장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으로, 특히 농업인의 실익 증진, 경제·신용사업 활성화, 경영 혁신 등 전북농협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주요 평가 기준이 된다.

김윤희 조합장은 조합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2024년 금융점포와 하나마트를 통합한 종합청사를 준공, 지역주민의 금융·생활 편의를 크게 높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영농자재 무상지원으로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 영농활동을 적극 도왔다.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도 힘쓰며 농업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로 평가된다.

김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조합원과 임직원이 함께 만든 어ნ 성과”라며 “앞으로도 봉동농협이 지역 농업과 농촌의 든든한 중심 기관으로서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상근 기자

60년 산 집에 처음 생긴 ‘안전한 화장실’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노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학과장 장미선)가 노인가구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18일 입주식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됐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온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대상 주택은 60년 넘게 거주한 노후 공간으로, 치매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아 생활 불편이 컸다. 세면대조차 없는 취약한 화장실, 전방위로 노후한 마감재, 낮은 조도, 환풍기·방충망 부재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부족했다. 특히 문턱과 높은 단차로 인해 낙상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교수진과 학생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노인 안전 중심의 화장실 개보수(단차 조정, 안전손잡이, 세면대, 벽 부착형 샤워의자 설치) △노후 마감재 교체 △환풍기·방충망 신규 설치 △조도조명 조명 교체 등을 진행하며 주택 전반의 안전과 위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개선된 공간을 본 어르신은 “화장실이 너무 불편했는데 손잡이도 잘 설치해주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정말 감사



하다”며 “주방 벽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해져 좋고, 바닥에 앉아 식사했는데 식탁까지 마련해줘 물이 앉아 먹기 딱 좋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이날 입주식에는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교수진과 학부생 30여 명,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지역 어르신 등이 참석해 개선된 공간을 둘러보고 어르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자)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86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자치도 공공기관·기업 연합 김장 담그기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19일 도청 야외공연장에서 도내 20개 공공기관 및 기업 임직원 17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2025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및 기업 연합 김장담그기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900포기(2,700kg)에 달하는 김장 김치를 직접담그고, 총 270상자(1상자 10kg)의 김치통에 포장하여 지역의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다.

행사에는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 전북본부, △전북개발공사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 △KT 전남전북본부 등 20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참여해 정성껏 김치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 백경태 국장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이번 김장나눔이 지역사회에 곳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이번 김장나눔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한 뜻깊은 자리”라며, “작은정성이지만 이 김치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진도군 전북협회, 남원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북 기부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진도군 전북협회(대표 김종석)가 전북 생산자들의 공급량 조절을 위해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전북 기부를 결정하고, 첫번째로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북 80kg(시가 28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진도군 전북협회는 진도군 전북 생산자 조합으로, 생산량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회원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추가 생산된 전복을 진도군 관내 및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함으로써 진도 전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저소득층의 먹거리 복지에 기여하고자 행사를 기획했다.

김종석 대표는 “조합원들의 이익은 물론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기부 행사의 의미를 설명하며, 많은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최고의 진도 전복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향교동 지사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남원시 향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부곤)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다.

이 행사는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향교동 복지허브화 연합모금사업을 통해 모인 후원금으로 추진되는 향교동 특화사업으로, 올해는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8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하였다.

특히 올해는 작년(60가구)보다 20가구를 추가해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협의체 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정성껏 담긴 김치를 가정마다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경찰서, 수능 종료 청소년 비행예방 홍보활동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는 최근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주류와 담배를 구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내 편의점들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김제경찰서는 수능 종료 후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 증가에 따른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편의점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경각심을 일깨웠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